

##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강 은 정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부 117쌍을 표집하여, 자신의 자기애 성향으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자기애 성향의 촉발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 때, 결혼만족도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 불안정/무력하다는 부정적인 대인지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대인감정은 덜 느끼고 긍정적인 대인소망은 더 가졌다.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는 관계를 좋게 하는 긍정적인 대인소망을 덜 느끼도록 하였다. 셋째,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는 높고 외현적 자기애는 낮은 집단이 배우자를 더 통제하고 배우자로부터 독립하려 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대인소망을 높게 가졌다. 본 연구는 자기애 성향자의 내적인 역동과 부적응적인 대인관계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대인반응,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

---

† 교신저자 : 강은정,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시 상도2동 361-26  
Tel : 011)9664-2476, E-mail : baramgwa@hanmail.net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 내담자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담자가 선택적으로 무시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경험, 즉 자각되지 못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에서 찾는다(정남운, 1998).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 문제의 핵심인 대인관계패턴을 자각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대인관계패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렇게 대인관계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척도의 부재로 구체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그런데 최근에 김지은과 조성호(2004)가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각하는 대인지각,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대한 대인감정,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대인소망으로 이루어진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개발하였다.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은 인지, 정서, 행동이 반영되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김지은, 조성호, 2004) 그 자체로도 내면적인 역동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에서의 관계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 중의 하나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자기에 성향이다. 자기에 성향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현적 자기와 내현적 자기로 구분되는데(Hendin & Cheek, 1997; Kohut, 197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a, 1991b), 외현적 자기는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으로 요약되고, 내현적 자기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정남운, 2001a).

국내에서는 주로 외현적 자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권영란, 2002; 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박혜진, 2003; 이윤조, 2002; 차타순, 2002; 최종순, 2003; 한수정, 1999) 최근 내현적 자기에 대한 부적응적인 면이 많이 알려지면서, 실제 상담 장면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내현적 자기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강연우, 2004; 김정문, 2004; 박동숙, 2004; 박세란, 2004; 백승혜, 2005; 이인숙, 2002; 이준득, 2005). 이들 연구에 사용되는 내현적 자기와 외현적 자기를 측정하는 척도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부적응적이고 자기소멸적이며,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비교적 건강하고 적응적이지만, 둘다 내면에는 취약한 자기를 갖고 있고 공허하고 지루하고 우울한 자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 즉, 자기과시적이고 자기교양적인 외현적 자기에도 결국은 취약한 자기를 보상하려는 방어적인 모습이라는 것에는 일치한다.

그리고 강연우(2004)는 처음으로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는 CNS(Covert Narcissism Scale, 이하 CNS로 약칭함)와 외현적 자기를 측정하는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 이하 NPI로 약칭함)를 함께 실시하여, 내현적 자기와 외현적 자기를 고저에 따른 네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내현적·외현적 자기가 모두 높은 집단이 내현적 자기에만 높은 집단보다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더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것은 자기를 연구할 때, 내현적 자기와 외현적 자기를 동시에 지니는 집단, 둘 중 하나의 성향만 높은 집단,

두 성향 모두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애를 좀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각각으로도 살펴보고, 강연우(2004)의 연구처럼 네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대인관계이론에서는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데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을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배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복종적인 반응을, 우호적인 행동은 우호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Leary(1957)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보적인 행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상보적인 행동은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지만 비상보적인 행동은 불안을 유발하게 한다(정남운, 1999). 따라서 대인관계에서는 항상 패턴의 변화가 요구되지만 부적응적인 사람의 경우는 다양한 대인행동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적고, 행동선택의 범위가 좁고 완고하여, 좁은 범위의 한두 가지 대인관계 반응을 과도하게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반응들은 상황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자주 강렬하게 표현된다. 이들은 완고하고 제한된 관계를 끌어낸다. 그 사람이 극단적이고 경직될수록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지닌 패턴에 다른 사람이 맞추도록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Leary, 1957; 김지은, 조성호, 2004 재인용).

Robbins와 Dupont(1992)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 자기애적 성향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되는지에 대해 연구했는데, 웅대하고 노출적인 자기애적 성향자는 지배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강한 이상화 욕구를 가진 자기애적 성향자는 순종적이고 다소 적대적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한다고 보고했다(박세란, 2004 재인용). 국내 연구로는 강연우(2004)가 CNS와 NPI를 대인관계원형모델상에 배치해 보았는데, 내현적 자기애는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보였고, 외현적 자기애는 지배적이면서 적대적인 특성을 보였다. 정남운(2001a)도 과민성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를 통해 측정된 과민성 자기애가 순종적이면서 다소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정남운(2001a)은 과민성 자기애척도를 요인분석하여 평가예민성과 자기몰입의 두 요인으로 나누고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의 위치를 확인하였을 때 평가예민성은 다소 수동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고, 자기 몰입은 상당히 비우호적이고 냉정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이 대하는 것을 지각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느끼고 소망을 품는 것은 자신의 자기애적인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불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쌍으로 표집하여, 상호작용자 자신의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자기애적 성향의 촉발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

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한다. 즉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으로 인해 어떤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을 주로 갖게 되며, 배우자에게는 어떤 역동을 불러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에 성향이 갖는 대인관계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호작용자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배우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드는 감정, 배우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2.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배우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드는 감정, 배우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방 법

### 연구대상

제주도, 서울, 인천, 경기도, 울산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70쌍을 배부하고 수거되지 않거나 한쪽 배우자만 하는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117쌍, 234명의 자료가 연구 자료로 쓰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 작성시, 배우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지 말고 작성하여서 밀봉된 봉투에 넣고 연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평균 연령은 전체 35.7세(SD 5.37)로, 남자 36.8세(SD 5.28)이고 여자 34.57세(SD 5.25)이다. 대상자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7.62년(SD 6.06)이며 평균 교제기간은 2.44년(SD 2.02)

으로 나타났다.

### 측정 도구

####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2002)가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는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5요인이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내적합치도( $\alpha$ )는 .90,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 $\alpha$ )는 요인의 순서대로 .89, .81, .74,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내적합치도( $\alpha$ )는 .91 각 하위척도는 요인의 순서대로 .86, .75, .80, .75, .78이다.

#### 외현적 자기에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 도구이다. 강제선택형의 이분법적 검사도구로 총 54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Raskin과 Terry(1988)는 주성분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b)이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40문항을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Raskin과 Terry(1988)는 내적합치도( $\alpha$ )를 .83으로 보고하였고, 정남운(2001b)은 단축된 검사가 .85의 내적합치도( $\alpha$ )

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alpha$ )가 .82로 나타났다.

### 결혼만족도 척도

최규련(1988)이 Roach 등(1981)의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전반적인 결혼생활 만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만족으로 한정하여, 결혼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한 도구를 채택하였다. 총 12문항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드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alpha$ )는 .94이다.

###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김지은과 조성호(2004)가 개발한 척도로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인지각 66문항, 대인감정 57문항, 대인소망 5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대인지각의 하위 요인으로는 존중/지지, 불안정/무력, 지배, 거부, 순종, 친애, 건방/거만, 공격, 경계/회피, 우호/신뢰가 있고, 대인감정의 하위요인으로는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연민/동정, 자신감,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애정/기쁨/신뢰, 우울/질투심이 있다. 그리고 대인소망의 하위요인으로는 보호/조력, 통제, 순종/의지, 독립, 저항,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 방어/회피, 공격/거부가 있다. 김지은과 조성호(2004)의 연구에서 대인지각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80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81-.95이다. 대인감정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90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79-.96이며, 대인소망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88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64-.89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

지각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84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70-.91이다. 대인감정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92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75-.92이며, 대인소망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90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64-.92이다.

### 분석방법

먼저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자신의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리고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평균점수로 고저를 나눈 네 집단과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신의 결혼만족도는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촉발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자신의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상관을 보았다. 그리고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평균점수로 고저를 나눈 네 집단과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도 결혼만족도는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상호작용자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

### 상호작용자 '자신'의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상관

'자신'의 CNS총점은 부정적인 대인지각·부정적인 대인감정·부정적인 대인소망에 .235( $p < .001$ ), .254( $p < .001$ ), .343( $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갈등상태일 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가 지배, 불안정/무력, 경계/회피, 건방/거만, 공격, 거부적이라는 부정적인 지각을 높게 하였고, 배우자에게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 혐오/분노, 불안/난감의 부정적인 감정을 높게 가졌으며, 통제, 저항, 공격/거부, 독립, 방어/회피의 부정적인 대인소망과 순종/의지의 긍정적인 소망도 높았다. 그리고 각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대인지각·부정적인 대인감정·부정적인 대인소망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과민/취약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대인지각, 부정적인 대인감정, 부정적인 대인소망을 더 많이 가졌는데, 상호작용하는 배우자가 불안정/무력, 경계/회피, 거부, 지배, 공격, 건방/거만하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 혐오/분노, 불안/난감의 감정을 느꼈으며, 방어/회피, 저항, 통제, 독립, 공격/거부의 부정적인 대인소망을 가졌다. 목표불안정 요인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존중/지지, 우호/신뢰, 친애적으로 대하지 않고, 지배, 거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도록 하였고, 혐오/분노,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의 감정을 더 느꼈으며, 저항, 통제, 공격/거부, 독립, 방어/회피의 소망을 더 가지도

록 했다.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지배, 불안정/무력하다고 지각하는 게 높았고, 배우자에게 혐오/분노, 불안/난감, 우울/질투심의 감정을 더 느꼈으며, 통제, 저항, 방어/회피의 부정적인 소망과 함께 인정·애정갈망과 성장/발전의 긍정적인 소망도 가졌다. 또한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에게 경계/회피, 지배적이라고 지각하지만, 배우자에게 자신감, 애정/기쁨/신뢰의 긍정적인 감정과 혐오/분노, 불안/난감, 우울/질투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더 느꼈으며, 배우자에게 순종/의지의 긍정적인 소망과 통제, 공격/거부, 저항의 부정적인 소망도 높게 가지는 걸로 나타났다(표 1).

여기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은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도 더 갖게 하고,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소망과 함께 긍정적인 소망도 더 갖게 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은 비교적 기능상 적응적이라고 알려진 외현적 자기에와의 공통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신'의 외현적 자기에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상관

'자신'의 NPI총점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인 리더십/자신감 요인은 대인감정의 혐오/분노( $r = -.128, p < .05$ ), 불안/난감( $r = -.2018, p < .01$ ), 두려움/무력감( $r = -.190, p < .01$ ), 우울/질투심( $r = -.152, p < .05$ ), 대인소망의

표 1. '자신'의 CNS의 각 하위변인과 대인지각 · 대인감정 · 대인소망의 각 하위변인과의 상관

	CNS총점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착취/ 자기중심성	과민/ 취약성	소심/ 자신감부족
긍정지각	-.109	-.162*	-.049	-.056	-.086	-.028
존중/지지	-.145*	-.185**	-.091	-.097	-.106	-.040
우호/신뢰	-.141*	-.166*	-.108	-.090	-.117	-.017
순종/의지	.061	-.011	.072	.083	.044	.048
친애	-.120	-.180**	-.008	-.054	-.095	-.077
대인 부정지각	.235***	.160*	.193**	.172**	.232***	.103
지각    불안정/무력	.204**	.126	.182**	.127	.214**	.115
지배	.226**	.171**	.188**	.165*	.180**	.116
거부	.169**	.142*	.137*	.082	.192**	.053
견방/거만	.178**	.127	.113	.134*	.172**	.093
공격	.175**	.124	.161*	.125	.175**	.040
경계/회피	.204**	.117	.164*	.184**	.198**	.093
긍정감정	.110	.051	.002	.184**	.081	.112
자신감	.140*	.065	.014	.206**	.108	.146*
애정/기쁨/신뢰	.083	.038	-.005	.156*	.058	.083
대인 부정감정	.254***	.127	.225**	.135*	.270***	.182**
감정    혐오/분노	.281***	.218**	.227***	.120	.273***	.180**
수치/죄책감	.079	-.037	.155*	.081	.105	.011
연민/동정	-.038	-.136*	.031	-.024	.011	-.003
불안/난감	.237***	.119	.216**	.141*	.236***	.183**
두려움/무력감	.339***	.220**	.199**	.202**	.358***	.269***
우울/질투심	.281***	.189**	.215**	.132*	.277***	.199**
긍정소망	.004	-.049	.102	.013	-.006	-.039
보호/조력	-.126	-.149*	-.031	-.041	-.105	-.125
순종/의지	.146*	.065	.101	.178**	.092	.112
인정·애정갈망	.034	.011	.181**	-.026	.001	-.042
성장/발전	.042	-.007	.157*	-.065	.067	-.015
대인 부정소망	.343***	.266***	.256***	.226***	.307***	.195**
소망    통제	.326***	.220**	.275***	.319***	.255***	.156*
독립	.251***	.198**	.179**	.106	.247***	.165*
저항	.314***	.276***	.234***	.200**	.260***	.187**
방어/회피	.249***	.195**	.204**	.060	.276***	.153*
공격/거부	.285***	.217**	.185**	.236***	.247***	.152*

주. CNS : 내현적 자기애

N = 23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자신' NPI의 각 하위변인과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 각 하위변인과의 상관

		NPI총점	리더십/ 자신감	권력욕구/ 특권의식	과시/ 칭찬욕구	우월의식
대인 지각	긍정지각	.015	.041	-.026	.020	.019
	존중/지지	.004	.034	-.017	-.007	.011
	우호/신뢰	-.022	.026	-.090	.007	.022
	순종/의지	-.002	-.022	.002	.004	.021
	친애	.077	.103	.021	.075	.018
	부정지각	.019	-.019	.063	-.007	.013
	불안정/무력	-.041	-.063	.000	-.045	-.009
	지배	.016	-.031	.061	.025	-.042
	거부	-.003	-.046	.066	-.045	.016
	건방/거만	.012	-.012	.053	.013	-.064
	공격	.061	.035	.078	.019	.053
	경계/회피	.053	-.008	.074	.034	.074
	대인 감정	긍정감정	.083	.032	.077	.051
자신감		.117	.061	.099	.090	.121
애정/기쁨/신뢰		.056	.013	.057	.024	.108
부정감정		-.083	-.175**	-.032	.000	-.039
혐오/분노		-.087	-.128*	-.060	-.002	-.088
수치/죄책감		-.044	-.067	.004	-.047	-.025
연민/동정		.006	-.071	.044	.056	-.050
불안/난감		-.097	-.201**	-.051	-.014	.012
두려움/무력감		-.087	-.190**	-.043	.000	-.009
우울/질투심	-.076	-.152*	-.037	-.015	.000	
대인 소망	긍정소망	.111	.022	.105	.163*	-.012
	보호/조력	.095	.091	.081	.073	.007
	순종/의지	.068	.006	.043	.133*	-.008
	인정·애정갈망	.072	-.044	.092	.142*	-.023
	성장/발전	.115	-.046	.131*	.216**	-.029
	부정소망	.009	-.118	.039	.070	.051
	통제	.041	-.096	.040	.103	.114
	독립	.013	-.075	.061	.030	.021
	저항	-.004	-.092	.020	.054	.002
	방어/회피	-.028	-.165*	.031	.064	-.034
	공격/거부	.010	-.081	.014	.049	.090

주. NPI : 외현적 자기에

N=234 \*  $p < .05$ , \*\*  $p < .01$

방어/회피( $r=-.165, p<.05$ )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은 대인소망의 성장/발전( $r=.131, p<.05$ )과 정적상관을, 과시/칭찬욕구 요인은 대인소망의 순종/의지( $r=.133, p<.05$ ), 인정·애정갈망( $r=.142, p<.05$ ), 성장/발전( $r=.216, p<.01$ )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보다는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에 영향을 덜 주지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순종/의지,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의 대인소망을 더 갖게 하는 걸로 나타났다.

####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 고저에 따른 집단과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차이검증

‘자신’의 CNS총점의 평균 112.90과 NPI총점의 평균 11.79를 기준으로, 고저에 따라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 내현적 자기애는 높고 외현적 자기애는 낮은 집단, 내현적 자기애는 낮고 외현적 자기애는 높은 집단, 내현적·외현적 자기애가 모두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이때 결혼만족도는 공변인으로 통제를 하였다. 각각의 유의미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공변량분석 결과와 사후검증 결과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공변인으로 설정한 결혼만족도는 대인지각의 경계/회피에서, 대인감정의 두려움/무력감, 애정/기쁨/신뢰에서, 대인소망의 통제, 독립, 부정소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05수준에서의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는 높고 외현적 자

기애는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려움/무력감을 더 느끼며, 배우자를 더 통제하고 배우자로부터 독립하려 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대인소망을 더 가졌다. 특히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더 경계/회피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두려움/무력감과 함께 자신감, 애정/기쁨/신뢰의 긍정적인 상반된 감정을 갖는 걸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특성과 외현적 자기애의 자기과시적인 특성으로 과잉 긍정 방어하는 특성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 경우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부적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 경우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함께 높으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만 높을 경우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낮을 경우는 좀 더 적응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

####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상관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자신’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비해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 거의 상관이 없는 편이며, 하위요인만이 대인지각과 대인소망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목표/불안정 요인은 대인지각의 거부( $r=.144, p<.05$ ), 대인소망의 순종/의지( $r=.172, p<.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과

표 3.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의 고저에 따른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신'의 C_N고저	평균	표준편차	N
대인 지각	경계/회피	C고N고	18.98	6.670	44
		C고N저	17.13	5.907	76
		C저N고	15.59	5.897	58
		C저N저	15.23	5.458	53
		Total	16.66	6.076	231
	두려움/ 무력감	C고N고	14.09	5.382	44
		C고N저	15.11	5.235	76
		C저N고	12.14	3.644	58
		C저N저	12.00	4.599	53
		Total	13.45	4.932	231
대인 감정	자신감	C고N고	10.82	4.785	44
		C고N저	9.34	3.928	76
		C저N고	8.88	4.091	58
		C저N저	8.32	3.502	53
		Total	9.27	4.116	231
	애정/기쁨/ 신뢰	C고N고	18.32	8.388	44
		C고N저	15.72	6.131	76
		C저N고	14.83	6.508	58
		C저N저	15.74	6.202	53
		Total	16.00	6.784	231
	긍정감정	C고N고	29.14	12.900	44
		C고N저	25.07	9.431	76
		C저N고	23.71	10.084	58
		C저N저	24.06	9.193	53
		Total	25.27	10.404	231
	통제	C고N고	13.30	4.168	44
		C고N저	12.95	4.033	76
		C저N고	11.48	3.970	58
		C저N저	10.36	4.324	53
		Total	12.05	4.241	231
대인 소망	독립	C고N고	23.25	5.090	44
		C고N저	22.61	4.784	76
		C저N고	21.74	4.865	58
		C저N저	20.09	5.126	53
		Total	21.94	5.038	231
	부정소망	C고N고	87.39	21.159	44
		C고N저	86.76	17.725	76
		C저N고	80.07	18.001	58
		C저N저	74.51	18.666	53
		Total	82.39	19.287	231

주. C: CNS(내현적 자기애), N: NPI(외현적 자기애), 집단의 고저는 평균을 기준으로 나눔

표 4.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의 고저에 따른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에 대한 공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하위 변인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후검증	
공변인 (결혼 만족도)	대인지각	경계/회피	725.036	1	725.036	22.336***		
		두려움/무력감	143.256	1	143.256	6.457*		
	대인감정	자신감	4.484	1	4.484	0.272		
		애정/기쁨/신뢰	320.404	1	320.404	7.286**		
		긍정감정	400.692	1	400.692	3.835		
	대인소망	통제	92.441	1	92.441	5.578**		
		독립	443.047	1	443.047	19.621***		
		부정소망	8,761.099	1	8,761.099	28.030***		
	'자신'의 C_N 고저	대인지각	경계/회피	297.241	3	99.080	3.052*	1 > 3=4
			두려움/무력감	308.880	3	102.960	4.640**	1=2 > 3=4
대인감정		자신감	166.498	3	55.499	3.364*	1 > 3=4	
		애정/기쁨/신뢰	385.447	3	128.482	2.922*	1 > 2=3	
		긍정감정	998.580	3	332.860	3.185*	1 > 2=3=4	
대인소망		통제	233.132	3	77.711	4.689**	1=2 > 3=4*	
		독립	199.521	3	66.507	2.945*	1=2 > 4	
		부정소망	3,669.865	3	1,223.288	3.914**	1=2 > 3=4	

주. 집단1: CNS와 NPI가 둘 다 높은 집단, 집단2: CNS는 높고 NPI는 낮은 집단, 집단3: CNS는 낮고 NPI는 높은 집단, 집단4: CNS와 NPI 모두 낮은 집단. '>'표시는 집단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  $p < .05$ , \*\*  $p < .01$ , \*\*\*  $p < .001$

민/취약성 요인은 대인지각의 존중/지지( $r = -.129, p < .05$ ), 불안정/무력( $r = .191, p < .01$ )과, 소심/자신감부족 요인은 대인지각의 불안정/무력( $r = .177, p < .01$ ), 대인소망의 순종/의지( $r = .139, p < .05$ )와 상관을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 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 불안정/무력하다는 지각을 촉발하고, 특히 과민/취약성 요인이 높을 때, 불안정/무력하며,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지각을 촉발하며, 순종/의

지하려는 대인소망도 촉발한다는 것이다.

#### ‘배우자’의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상관

표 6을 보면 ‘배우자’의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대인감정과 대인소망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 대인지각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NPI총점은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 상관이

표 5. '배우자'의 CNS의 각 하위변인과 대인지각·대인소망의 각 하위변인과의 상관

	CNS총점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착취/ 자기중심성	과민/ 취약성	소심/ 자신감부족
긍정지각	-.072	-.054	-.089	.013	-.106	-.004
존중/지지	-.108	-.083	-.110	-.030	-.129*	-.024
우호/신뢰	-.094	-.071	-.104	.003	-.123	-.036
순종/의지	.026	.083	-.081	.039	-.010	.072
친애	-.047	-.090	-.005	.053	-.088	-.006
대인 부정지각	.125	.120	.088	.031	.143*	.076
지각 불안정/무력	.167*	.160*	.071	.027	.191**	.177**
지배	.068	.059	.043	.010	.093	.031
거부	.084	.144*	.007	-.040	.121	.071
견방/거만	.063	.010	.123	.103	.054	-.066
공격	.073	.045	.077	.020	.090	.024
경계/회피	.096	.124	.055	-.003	.108	.076
긍정감정	.070	.079	-.039	.066	.069	.096
자신감	.020	.041	-.064	.046	.030	.034
애정/기쁨/신뢰	.095	.095	-.020	.074	.087	.127
부정감정	-.004	.049	.038	-.082	-.008	-.025
대인 혐오/분노	.001	.019	.038	-.021	.007	-.076
감정 수치/죄책감	.009	.046	.030	-.074	-.007	.055
연민/동정	-.004	.027	.012	-.060	-.010	.041
불안/난감	-.022	.027	.032	-.086	-.045	-.032
두려움/무력감	-.002	.073	.022	-.075	.000	-.032
우울/질투심	.000	.048	.039	-.078	.014	-.046
긍정소망	.008	.017	-.041	-.042	.014	.095
보호/조력	-.007	.004	-.049	-.053	.014	.088
순종/의지	.113	.172**	-.026	.053	.088	.139*
인정·애정갈망	-.017	-.066	.014	-.034	-.022	.061
성장/발전	-.095	-.087	-.077	-.113	-.060	-.035
대인 부정소망	.007	.039	-.011	-.004	.015	-.065
소망 통제	.072	.113	-.038	.051	.067	.018
독립	-.006	.009	.000	-.024	.025	-.061
저항	-.023	-.019	-.011	.009	-.049	-.057
방어/회피	-.042	.019	-.050	-.057	-.006	-.102
공격/거부	.020	.043	.032	.001	.022	-.068

주. CNS: 내현적 자기에

N=234 \*  $p < .05$ , \*\*  $p < .01$

표 6. '배우자'의 NPI 각 하위변인과 대인감정·대인소망의 각 하위변인과의 상관

		NPI총점	리더십/ 자신감	권력욕구/ 특권의식	과시/ 칭찬욕구	우월의식
대인 지각	긍정지각	-.008	-.066	-.004	.051	-.013
	존중/지지	-.026	-.045	-.027	.021	-.039
	우호/신뢰	.023	-.039	.022	.063	.020
	순종/의지	-.070	-.083	-.070	-.008	-.044
	친애	.040	-.078	.060	.106	.020
	부정지각	-.064	-.036	-.044	-.078	-.020
	불안정/무력	-.108	-.052	-.081	-.124	-.052
	지배	-.027	-.030	-.009	-.019	-.030
	거부	-.123	-.060	-.124	-.113	-.043
	견방/거만	.070	.012	.099	.045	.042
대인 감정	공격	-.044	-.011	-.019	-.086	.002
	경계/회피	-.065	-.025	-.068	-.065	-.019
	긍정감정	-.007	-.064	-.023	.093	-.056
	자신감	.062	-.001	.027	.136*	.000
	애정/기쁨/신뢰	-.048	-.097	-.051	.060	-.086
	부정감정	-.074	.040	-.059	-.153*	-.034
	혐오/분노	.005	.080	.018	-.103	.047
	수치/죄책감	-.111	-.024	-.117	-.090	-.115
	연민/동정	-.081	-.015	-.042	-.101	-.117
대인 소망	불안/난감	-.094	.015	-.093	-.147*	-.032
	두려움/무력감	-.058	.039	-.076	-.114	.015
	우울/질투심	-.031	.067	-.009	-.147*	.023
	긍정소망	-.123	-.088	-.083	-.074	-.168*
	보호/조력	-.096	-.124	-.055	.003	-.175**
	순종/의지	-.183**	-.131*	-.165*	-.127	-.119
	인정·애정갈망	-.054	-.012	-.016	-.082	-.076
	성장/발전	-.034	.053	-.015	-.065	-.128
	부정소망	.040	.089	.032	-.041	.059
통제	-.048	.015	-.058	-.082	.009	
독립	.089	.086	.100	.026	.043	
저항	.043	.109	.018	-.037	.059	
방어/회피	-.001	.056	-.003	-.047	-.011	
공격/거부	.059	.092	.052	-.040	.116	

주. NPI :외현적 자기애

N=234 \*  $p < .05$ , \*\*  $p < .01$

전혀 없었는데, ‘배우자’의 NPI총점은 대인소망의 순종/의지와 유의미한 부적상관( $r=-.183, p<.01$ )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위요인인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도 대인소망에서 순종/의지와 유의미하게 부적상관( $r=-.131, p<.01, r=-.165, p<.05$ )을 보였고, 우월의식은 보호/조력( $r=-.1753, p<.01$ )과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과시/칭찬욕구 요인은 대인감정의 자신감( $r=.136, p<.05$ ), 불안/난감( $r=-.147, p<.05$ ), 우울/질투심( $r=-.147, p<.05$ )과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 고저에 따른 집단과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차이검증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고저수준에 따른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차이검증을 할 때처럼, ‘배우자’의 CNS와 NPI의 평균 점수로 고저에 따른 네 집단으로 나누어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이때 결혼 만족도는 공변인으로 통계를 하였다. 그런데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의 결과들과 연결해 본다면,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은 ‘배우자’의 자기에 성향으로 인한 것보다는 ‘자신’의 자기에 성향에 의해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호작용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자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으로 인한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 보았는데, ‘배우자’의 자기애적 성향의 촉발로 인한 것보다는 ‘자신’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배우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역동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패턴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갈등상태일 때,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소망을 더 가졌다. 즉 배우자가 지배적이거나 불안정/무력하고 경계/회피적이라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두려움/무력감을 더 느끼며 배우자를 통제하고 저항하려는 마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 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불안정/무력하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두려움/무력감을 느끼며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더 갖는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는 불안정/무력하고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지각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우(2004)가 내현적 자기에 대한 대인관계 원형모델상에 배치해 보았을 때 다소 적대적이며 수동적인 대인관계를 보인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기대로 불안해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Emmons, 1984; Hendin & Chec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Raskin & Terry, 1988; Rathvon & Holmstrom, 1996; Watson, Taylor, & Morris, 1987; Wink, 1991a, 1991b; 박동숙, 2004; 이인숙, 2002; 정남운, 2001a).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기대는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지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은 다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인관계의 순환적이고 인과적인 모습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갈등상태일 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 혐오/분노, 불안/난감, 우울/질투,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느끼지 않고 배우자에게 순종/의지,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대인소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는 긍정적인 대인소망인 순종/의지, 보호/조력하려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도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것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Morf(1994)는 자기에 성향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맞춤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찾기보다는 자기과장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과장적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며, 객관적 평정자들은 자기에 성향자들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난(Carroll, Hoenigmann-Stovall, & Whitehead III, 1996) 것과 일치한다. 즉,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자신의 웅대성을 전시하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어,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역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결국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갈등상태일 때, 상호작용하는 배

우자에게 부정적인 대인감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상을 왜곡하는 자기애적인 방어의 일부로 볼 수 있다(Akhtar & Thompson, 1987; Kernberg, 1975, 박세란, 2004 재인용).

셋째,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고저 수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서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배우자’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촉발로 인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자 ‘자신’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고저수준에 따른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를 보면,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과 내현적 자기에 높은 외현적 자기에 낮은 집단이 갈등상태일 때,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두려움/무력감을 더 느끼고 배우자를 더 통제하고 배우자로부터 독립하려 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대인소망을 높게 가지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은 갈등상태일 때, 배우자가 자신에게 더 경계/회피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자신감, 애정/기쁨/신뢰의 긍정적인 대인감정과 두려움/무력감의 상반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걸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우자와 갈등상태일 때 느끼는 자신감, 애정/기쁨/신뢰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무력감에 대한 과잉 긍정 방어로 상호작용하는 배우자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실추된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에 성향자들이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 실패를 무효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예를 들면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평가자나 평가방법을 헐뜯는다(Kernis & Sun, 1994; Morf & Rhodewalt, 1993; Smalley & Stake, 1996)는 연

구결과와 상통한다. 또한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권영란, 2002; 김정문, 2004; 박동숙, 2004; 박세란, 2004; 백승혜, 2005; 이인숙, 2002; 이준득, 2005)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긴 하지만 더 나아가 비교적 적응적이라고 알려진 외현적 자기에 성향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함께 높을 때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만 높을 때보다도 더 부적응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강연우(2004)의 연구에서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인 방어유형과 미성숙한 방어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비록 적응적이더라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함께 높으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만 높은 사람보다 더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는 취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이지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데다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에 모두 높을 경우는 자신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그 혼란스럽고 불안정함으로 인해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이 더 부적응적이지 않은가 추측해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대인관계패턴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자기에적 성향과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자기에적 성향으로 나누어서 대인지각·대인감정·대인소망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패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둘째, 강연우(2004)의 연구에 이어 자

기에를 연구할 때,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함께 실시하여 연구하는 것이 자기에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자기방어적이긴 해도 건강하고 적응적이라고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함께 높을 때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만 높을 때보다도 더 부적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내현적 대인반응을 통하여, 자기에 성향의 일반인이 갖는 내면적 역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결혼기간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결혼기간에 따라 상호작용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의 경우는 서로 부딪치면서 서로에 대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여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 특성대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즉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자기에적 성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 서로의 성격적 특성에 맞물린 상태로 부부 사이의 관계패턴으로 굳어져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인관계패턴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더 자신의 의식적·무의식적 소망과 기대의 역동이 펼쳐지는 데이트커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의 질문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보고하는 데는 그 성격적 특성에 의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법과 함께 관찰자 평정에 의한

방법으로 대인관계의 역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내현적 대인반응은 상호작용자 자신의 성격적 변인, 상호작용하는 배우자의 성격적 변인,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 맞물리는 상호 관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상보성의 원리로 나타나는 상호역동적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추후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란 (2002). 자기애적 성향자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령 (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문 (2004). 자기애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8).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은, 조성호 (2004).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07-434.
- 박동숙 (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진 (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조 (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1998).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95-119.
- 정남운 (1999).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 본 내담자 문제와 상담자 전략: 개관.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8(1), 61-89.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애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3(2), 221-237.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종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경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III.,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 79, 1267-1272.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 Narcissism*, New York: Arosion.
-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13.
- Kohut, H. (1977).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Morf, C. C. (1994).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t's continual effort to maintain and bolster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199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5(6-B), 2430.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88-676.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thvon & Holmstrom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oach, A. J., Frazier, L. P., & Bow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36, 271-282.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Smalley, R. L. & Stake, J. E. (1996). Evaluating Sources of Ego-Threatening Feedback: Self-Esteem and Narcissism Effec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483-495.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7-8), 335-350.
- Wink, P. (1991a). Self-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원 고 접 수 일 : 2007. 8.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7. 11. 2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 Relationship of Narcissism and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s

Eun-jeong Kang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and 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feeling, and wish. For this purpose, I sampled 117 married couples and research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feeling, and wish. I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pousal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feeling, and wish. I selected marriage satisfaction as a covariat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s with higher covert narcissism were more likely to recognize that their spouse was treating them negatively, which led to negative feelings and wishes against their spouses, which worsened their relationship. In addition, higher covert narcissism was related to higher negative interpersonal perceptions, such as instability and incapability, by spouses towards the narcissistic partner. Second, individuals with high overt narcissism were less likely to have negative interpersonal feelings and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interpersonal wishes. However, higher overt narcissism was related to fewer positive interpersonal wishes by the spouse towards the narcissistic partner. Third, the group with high covert and overt narcissism and the group of high covert and low overt narcissism had more control over their spouse, greater tendency to be independent from their spouse, and more negative interpersonal wishes, which worsened their relationship.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shows more clearly the psychodynamics and negative interpersonal patterns of persons with narcissism.

*Key words* : Covert and overt narcissism,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terpersonal perception, feeling, and wishes